The association of work ability with job stress in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orkers
(한국 조선업 근로자들의 직업 스트레스와 업무 능력의 관련성)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조 강 희 · 김 수 근 · 류 승 호 · 김 동 일 · 정 철 · 이 상 윤

배경
업무 능력은 고령근로자의 증가와 건강문제 측면에서 산업의학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 스트레스, 일반적인 특성,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업무 능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있다.

대상 및 방법
조선업에 종사하는 남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N=9,021). 업무 능력과 직업 스트레스는 work ability index(WAI)와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의학적으로 확인된 만성 질병에 관한 정보도 확인하였다. WAI 또는 KOSS 설문지에 불충분하게 답을 한 2,659(25.9%)에 대해서는 NORM 2.03을 사용하여 data를 보충하여 분석하였다. WAI, 직업 스트레스, 건강상태, 일반적 특성과 관련성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로 적용하였다.

결과
증가된 직업 스트레스, 고령, 오래된 직업력, 8시간 이하의 근무시간, 낮은 학력, 만성 병력의 변수들이 업무 능력의 저하와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였다.

고찰 및 결론
업무 스트레스, 나이, 직업력, 근무시간, 교육정도, 만성 질병력이 낮은 업무능력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 항목 중 직업 스트레스는 중공업 근로자의 낮은 업무 능력에 가장 의미 있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직업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